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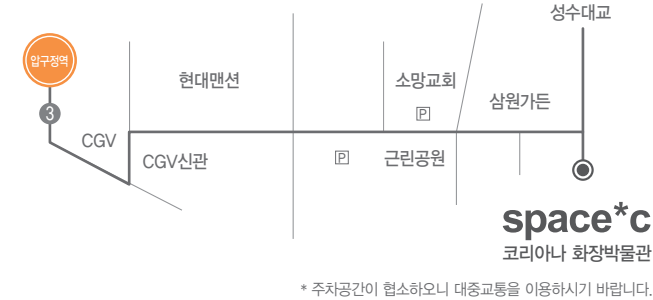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
* 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명절 연휴(설날, 추석)
* 기관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입 장 료 일반 4,000원 | 학생 3,000원 | 단체(10인 이상) 1,000원 할인
* 학생: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무료: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체 험 프로그램 향첩 | 향유 만들기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02.547.9177 / www.spacec.co.kr)

오시는 길



자가용이용시 성수대교 남단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약 500미터 직진, 우측에 위치
버 스 이 용 시 성수대교 남단 →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 간선 141, 지선 3011
신구중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도산공원 사거리 → 성수대교 남단 방면: 간선 141, 342, 지선 3011
도산공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지하철이용시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도보 8분

space*c 는 ㈜코리아나 화장품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입니다.

0602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27 스페이스 씨 | T. 02.547.9177
www.spacec.co.kr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Coréana

space*c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개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우리 옛 여인들의 화장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탄생한 한국 최대 규모의 전문 화장박물관으로, (주)코리아나 화장품 창업자인 松坡 유상옥 박사가 지난 50여 년간 소중하게 모아온 컬렉션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신사동 스페이스 씨와 천안 송파기술연구원 내 총 두 개관이 있으며, 화장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남녀 화장도구를 비롯하여 화장용기, 장신구 및 생활문화에 관련된 유물 300여 점을 전시한다. 또한 세정제, 분, 눈썹먹, 연지, 화장유, 향 등 전통화장 천연재료를 제조도구와 함께 전시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특별 전시실에서는 화장문화 및 특정한 주제와 유물을 통해 소장품을 재해석하는 소장품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전시 외에도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프랑스·영국·일본·중국·미국 등에서 한국의 화장문화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설립자 유상옥 관장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한 유물기증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에는 고려와 조선시대 화장용기 200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덕수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등에도 유물을 기증하였다.



한국화장문화

한국의 화장문화는 BC 1세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삼국 시대(BC 57 - AD 668) 각 지역의 문화 특성에 따라 성장했다. 이 시기 화장법과 연지 제조 기술은 일본으로 전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고분 벽화에 그려진 다양한 머리 모양과 깔끔하게 다듬은 눈썹, 볼과 입술에 연지를 바른 여성의 모습은 이 시기 화장문화가 이미 번성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불교의 유입으로 청결한 몸을 가꾸기 위한 목욕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다.

이후, 대외교류의 과정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와 기존 삼국 문화의 융합은 통일신라 시대(676-935)의 화장문화가 더욱 진보할 수 있는 동기였다. 비단길을 통해 수입된 향료와 식물 등은 새로운 화장재료가 되었고, 비단과 보석 등은 복식과 장신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장하던 한국의 화장문화는 고려 시대(918-1392)에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청자와 청동거울 제작 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용기와 도구는 보편화 되었고, 지위에 따라 화장법에 차이가 있을 정도로 화장문화의 번영기를 누렸다. 융성했던 고려의 화장문화는 조선(1392-1910)이 건국되면서 예를 갖추되 사치하지 않은 정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외적 화려함보다 본연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화장문화는 아름다움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나아가 K-Beauty의 위상을 높인 자연스러운 화장법과 천연재료의 고유한 효능으로 만든 화장품이 세계인에게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당 김은호, 춘향도



월전 장우성, 미인도

천연화장재료와 화장법



한국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썼다. 녹두와 팥으로 만든 가루비누로 몸을 씻고, 미백과 노화방지에 좋은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을 발라 피부를 매끄럽게 가꿨다. 일반적으로 흰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성 대부분은 자신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색분을 만들어 쓰는 지혜가 있었다. 이때 사용된 재료에는 쌀, 분꽃 씨, 활석 등의 백분 외에 색을 내기 위한 황토, 칩뿌리 가루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분은 부착력이 좋지 않아서 물에 개어 바르거나, 분을 푼 물에 세수를 하였다. 또한,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눈썹도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눈썹을 그려 개성 있는 화장법을 추구했다. 색조 화장은 홍화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를 이용한 연지를 입술과 볼에 발라 건강하고 혈색이 도는 얼굴로 꾸몄다. 더불어 향을 담은 노리개나 주머니를 착용하여 몸에서 은은한 향이 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용기

화장용기는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담아두던 보관 용기다. 대부분 흙을 구워 만든 도자기로 천연 화장재료가 좀 더 오랫동안 변질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한다. 또한, 화장 재료를 소량씩 만들고, 주 사용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화장용기의 크기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화장용기는 시대별 특성에 맞게 토기, 청자, 백자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제작·발전하였다. 여기에 화장용기 제작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양을 새겨 넣기도 했는데, 특히 조선 후기 청화 물감의 유입은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어 화장용기가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화장용기에는 유병·분항아리·분합·분수기·분접시가 있다. 유병은 액체를 담는 화장용기이며, 분합·분항아리는 고체와 분말 형태로 만든 화장재료와 향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다. 분접시와 분수기는 화장을 할 때 필요한 그릇으로 화장품을 개거나 물을 첨가할 때 사용한다.



분청자유병, 조선

백자청화 화장용기, 조선

장신구



보석삼작노리개, 조선



영락잠, 조선

노리개는 대표적인 여성 의복 장신구로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 끈에 걸어서 장식한다. 노리개는 매듭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부착하여 만든다. 노리개는 형태와 문양에 따라 장식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장수와 가족의 안녕, 자녀를 많이 낳기 바라는 등 착용자의 염원을 담기도 한다. 또한, 작은 칼이 매달린 장도 노리개의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착용하였다. 이밖에 신체 일부에 직접 부착되는 장신구로 여성의 머리 장식인 비녀·뒤꽂이·첩지 등이 대표적이며, 귀고리·목걸이·반지 등도 있다. 장신구는 신체와 의복에 쓰여 아름다움을 더하는 도구이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는데, 소재의 희소성과 가치로 말미암아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